

I. 개 요

1. 일시 : 2012. 10. 12. (16:00~18:00)
2.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층 회의실
3. 발표자 : 바실리 미헤예프 (MGIMO 부소장)
4. 참석자 :

이상준 국민대학교 교수
김상원 국민대학교 교수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 소장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CIS팀장
조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CIS팀 부연구위원
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CIS팀 부연구위원
주진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CIS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CIS팀 연구원
강부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CIS팀 연구원
황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CIS팀 인턴
김효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 인턴

5. 제 목

사회주의 붕괴: 북한과 러시아 비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최근 MGIMO에서 발간한 ‘글로벌 전망 2030’은 2030년에는 북한이 붕괴할 것을 가정하고 있음.
 - 발표자는 앞서 언급한 ‘글로벌 전망 2030’의 저자 중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함.
- 김정일의 사망과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북한 내 변화상황은 소련이 붕괴하기 전 상황과 유사한 면이 많음.
 - 김정은이 그의 아내 김선주와 함께 공식석상에 나타나는 등은 과거 소련시대 고르바초프가 자신의 아내를 공식석상에 대동한 경우와 유사함.
- 소련과 북한의 비교 시기
 - 현재 북한과 소련을 비교할 때 발표자는 스탈린의 사망 이후 시기, 특히 고르바초프 시기와 비교하고자 함.
 - 스탈린 사망 이후 당시 소련의 유력한 권력자였던 KGB출신의 베레야가 체포되었던 사실과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유력한 권력자였던 이영호가 해임된 상황은 또 하나의 유사점으로 들 수 있음.
 - 사실 김정일 사망 전후부터 북한에서 권력 투쟁이 나타나고 있음. 2008년 남한 관광객 총살, 김정남 살해 시도 등의 일련의 사건은 내부 투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암시함.
-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 악화
 - 전통적 형제국가로 알려진 중국은 최근 30년 간 북한에 약 1,200만

불을 지원했음.

- 중국인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난 7월 중국 내에서 반북 캠페인이 벌어진 바 있음.
- 중국과 북한의 관계 악화가 이영호 해임의 배경으로 비추어짐.

□ 그러나 북한과 소련의 차이점이자 북한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현재 북한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임.

- 고르바췌프는 당시 공산주의 사상을 사회민주주의로 바꾸기 원했으며, 차츰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음. 반면, 북한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상의 개혁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고르바췌프와 김정은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유사하나 사실상 김정은은 김정일의 조선로동당 군사위원회 의장 자리만 대체한 것으로 완전한 형태의 리더십 대체하고 할 수 없음.

□ 소련과 현재 북한의 또다른 차이점

- 소련이 붕괴할 당시 외부에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다는 것임. 당시 많은 소련 지도자들이 서유럽의 은행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음.
- 소련의 경우 군사적으로는 강대국이었으나 북한은 그렇지 않음.

□ 다행히 중국 등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그리고 소위 황금세대 (Golden Youth)라고 불리는 북한 부유층의 자녀들이 북한과 외부의 창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개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 정권의 결말

-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또한, 현재 남한 정부가 펴고 있는 강력한 정책이 유용했다고 봄.
- 북한은 앞으로 러시아의 예를 참고하여 시장경제를 통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안

- ‘전체적인 관여’로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접대한 예를 참고하여 북한을 대하고 6자회담의 5개국들은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 ‘새로운 상호주의’로 즉, 핵문제를 해결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식의 즉각적인 상호주의가 아닌 북한이 바꾸기 쉬운 농업 개혁 등 주변 분야의 개혁부터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임.
- 남북한 간의 공식적인 통로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참석자 의견)

- 최근 북한의 변화가 있지만 공식적인 변화는 없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또는 변화가 의미 있을 뿐 기타 변화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함.
- 또한, 북한과 소련의 큰 차이점은 북한이 아직 체제변환기에 있지 않다는 것임. 따라서, 북한이 본격적인 체제변환을 보이도록 향후 노력이 취해져야 할 것임.
-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은 없으며, 향후 외국(서양) 경험을

가진 북한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꾀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임.

□ (참석자 의견)

- 과거 한국 정부의 ‘햇빛 정책’에 의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북한에 개혁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음.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임.

□ (발표자 답변)

-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며,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더 필요함.
- 따라서, 앞서 제시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안에 따라서 남북한 간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보다 다양해져야 할 것임.